

유아의 놀이성과 생활능력과의 관계

이 중 강*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주거학과 석사과정)

안 선 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조교수)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생활능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놀이성(playfulness)은 놀이를 즐기고 잘하는 성향으로 의미하며, 놀이성이 발달한 유아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와 호기심이 강하고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다고 한다. 유아의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놀이가 그들의 모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놀이를 즐기고 잘하는 유아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생활속의 전반적인 능력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3세~5세사이의 남녀 유아 307명이었다. 유아의 놀이성의 측정은 Barnett(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을 김영희(1995)가 사용한 것으로 하였으며,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생활능력은 Park(1981)의 Iowa Parent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encies Instrument(IPACI)를 이병림(198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6개의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다. 각 측정도구는 총점이 높을수록 생활능력이 발달하거나 놀이성이 발달함을 의미한다. 유아의 놀이성은 담임교사가, 생활능력은 부모용 IPACI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평가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놀이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자발성의 평균은 남아가 높고($t = 2.35, p < .05$) 인지적 자발성은 여아가 높았다($t = -2.55, p < .05$). 유아의 연령에 따라 놀이성의 총점($F = 17.20, p < .05$)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5세 유아들이 4세 이하의 유아들에 비해 놀이성의 평균점수가 높았다($F = 4.73, p < .05$). 한편, 성별에 따른 유아의 생활능력은 하위영역 중 지적능력($t = -2.17, p < .05$)과 예술적 능력($t = -4.82,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평균이 높았다. 즉 연령이 높은 유아들이 놀이성과 생활능력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자연적인 발달 현상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생활능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상관계수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 = .13 \sim r = .24$).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특히 인지적 자발성은 생활능력의 하위요인 중 책임수행능력을 제외한, 신체운동, 지적, 사회적, 예술적 능력 및 인성과 관련이 있었다. 유아의 생활능력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능력과 인성의 하위요인은 놀이성의 거의 모든 하위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놀이성이 발달한 유아가 인성이 좋고 사회적 능력도 발달하였으며, 놀이성 중 특히 인지적 자발성이 유아의 생활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